

# 여수시-독일 ICLEI 세계본부 심박람회 홍보 협력

(세계지방정부협의회)

### 최정기 여수부시장, 독일 방문... 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 활동 ICLEI, 125개국 2500개 회원 도시 보유... 국제 사회 지지 유도

여수시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독일 본에 위치한 ICLEI(이클레이-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본부를 방문해 2026여수세계심박람회 성공 개최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과 지노 반 베긴 ICLEI 세계본부 사무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ICLEI 세계본부에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 ICLEI 유네스코 아리칸 글로벌 정책총괄국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심박람회 홍보 및 지원 ▲COP33 유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세계 125개국 2500여 개 회원 도시를 보유한 ICLEI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2026여수세계심박람회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COP33 개최를 통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본격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섬과 바다 등 블루카본(해양 생태계에 저장되는 탄소)의 중요성을 알렸던 2012 여수세계심박람회의 정신을 계승해, 2026여수세계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COP33을 유치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여수시의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6여수세계심박람회의 국제 홍보 및 COP33 유치 전략을 한층 고도화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지속 가능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지난 24일 ICLEI 세계본부와 심박람회 홍보와 COP33 유치를 위해 협력기로 협약을 맺었다.

## 고흥문화재단 설립 준비 '착착'

### 타당성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돌입

고흥군의 '고흥문화재단'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흥군은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행사의 연속성, 효율성, 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해 '고흥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흥군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흥군문화재단 설립은 급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문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요 사업에는 ▲문화예술진흥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관내 문화기반 시설 관리와 운영 등이 포함된다. 군은 올 하반기 중 재단 설립을 목표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전남연구원에는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설립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재단 설립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은 오는 5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 제정, 재단 이사회 구성, 법인 등기 등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민 흥군수는 "고흥문화재단은 흥군 문화진흥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며, "남은 행정절차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문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당성 검토 결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흥군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광양 증소 사업장에 '노동안전지킴이' 출동

### 민간전문가 6명 위촉... 개인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점검 강화

광양시가 이달부터 관내 건설업 및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인력이다. 시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6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 및 제조 현장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여부 ▲안전관리자 등 인력 배치 적정성 ▲개구부 덮개 등 추

락 방지 조치 ▲작업장미 운송 중 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광양시는 위험 요인 중대하거나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년간 지역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사고원인과 예방 대책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해 산업현장 합동점검과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도 추진해 지역 산업 현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가막만 연안 양식어장 환경개선 '물길트기'

여수시가 내달부터 가막만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을 시행한다. 가막만 연안어장.

### 여수시, 다음달부터... 어장 내 원활한 물 흐름 유도·양식장 환경 개선

여수시가 다음 달부터 가막만 연안어장 내 원활한 물 흐름을 유도하고 양식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안어장 재배치(물길트기)'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가막만 수하식 패류양식장 108곳(굴 72곳, 홍합 36곳), 932.6ha로 총 8억원(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5억 6000만원)이며, 오는 11월까지 재배치를 위한 조사와 측량이 실시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가막만 수하식 패류양식장의 재

배치도를 완성하고 2026년과 2027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이후 재배치도에 따라 면허양식장 위치를 조정하게 된다. 시는 사업이 완성되면, 가막만 굴, 홍합 양식장의 밀집도 조정에 따른 물길 확보로 영양염류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축적 감소와 생존율·성장률 향상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막만 내 어장 구조 정비로 항로 여유수역을 확보함에 따라 선박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어장환경도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안어장 재배치(물길트기) 사업으로 굴과 홍합의 품질 향상으로 어가 소득 증대는 물론 어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시 노인맞춤돌봄 보성서 '힐링 나들이'

### 다음달 9일까지 녹차 족욕 등

광양시가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외부 집단 활동 프로그램인 '힐링 나들이'를 보성에서 진행하고 있다. '힐링 나들이'는 정서적 우울감과 외로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지역탐방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대상 중 우울형 이용자 44명을 대상으로 한다. 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찾잔 도자기 페인팅 ▲녹차정식 체험 ▲녹차발 산책 ▲녹차 족욕 및 발마사지 등으로 구성돼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어르신들은 6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녹차로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어색했던 반 친구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됐다",



"매달 한 번씩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최남숙 광양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사회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외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한편, 광양시는 우울감이 높거나 고독사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집단활동 등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광양시 노인장애인과(061-797-4999)로 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보성군 "여름 모기, 유충 단계부터 박멸"

### 성충 발생 앞 집중 방역... 감염병 사전 차단 선제 대응

보성군은 여름철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 유충 단계에서부터 집중 방역을 추진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기온 상승 전인 지난 2월 해빙기에 1차 유충구제를 완료했으며, 3월에는 전 읍면 대상 일제 방제 작업도 마무리했다. 이어 4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2차 유충구제를 추진해 본격적인 성충 발생을 앞두고 모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방역은 정화조, 하수구, 물웅덩이 등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에 약제를 집중 살포해

성충으로 성장하기 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역 전문가에 따르면,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제거하면 여름철 성충 모기 500마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이번 선제방역으로 군 전체의 모기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모기 유충 구제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면서 "군민 여러분도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등 자율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디지털배움터에서 정보 격차 줄여요"

### 광양시, 12월까지 8개월간 운영...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광양시가 오는 12월 11일까지 8개월간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한다.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다. 전남에서는 광양커뮤니티센터, 남악북합주민센터, 보성노인복지관 3곳이 거점센터로 선정됐다. 광양시는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로 지정된 광양커뮤니티센터(2층)에 강사와 보조강사를 상시 배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AI 기반 논 검증 장비(아이케어), 디지털 혈압계, 인바디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 키오스크(무인주문기) 등 5종의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함께 운영했다. 그 결과, 800여 명의 시

민이 디지털 교육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커뮤니티센터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의 2025년 5월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기초·활용 ▲컴퓨터 기초·활용 ▲한글문서 기초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광양시는 교육 수요에 맞춰 4주(16차시) 정규 과정부터 1주(4차시) 단기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광양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매월 말 개설되는 교육 강좌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파견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파견교육은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어린이 모여라~ 동물놀이로 신나는 하루

### 순천만가든마켓·에코와일드, 다음달 3일~5일 체험행사

어린이날을 맞아 농협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대표 서명주)과 에코와일드(대표 신용희)가 함께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순천만가든마켓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가든마켓 동물나라'를 주제로 포유류부터 곤충, 파충류까지 다양한 동물 체험을 진행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안길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알파카, 면양, 염소, 미니말 등 다양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나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니양무세 체험장, 곤충·파충류 체험장, 동물 먹이 주기, 생태 교구 만들기 등 다채로

운 체험이 마련된다. 체험료는 1인당 2천원이다. 응급처치 부스와 안전요원, 사육사 등을 배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 기간 3일 동안 낭만 버스킹 공연도 진행돼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한편, 행사 이후엔 매주 토요일마다 순천만가든마켓 일원에서 '낭만 버스킹' 공연을 통해 순천만가든마켓의 문화행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버스킹 관련 안내는 순천만가든마켓 누리집, SNS(@scgmarket)로 공지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